

大學教育의 國際化



中央大 總長 河 璟 根

우리나라 大學들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問題는 大學教育의 國際化이며 現實的 高級 頭腦의 확보와 양성이다.

大學은 學問과 教育의 전당이며 知性和 叡智의 상징으로 社會的 發展에 따른 새로운 學問과 藝術을 창출함은 물론 다양한 人材를 輩出하여야 할 責任과 義務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全般的 社會組織과 尖端科學技術은 우리의 모든 生活 속에 빠르고 깊이있게 파고들어 政治·經濟·文化·教育 등 주변 環境을 무차별 變化시키면서 지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大學의 教育과 研究對象도 時代的 흐름에 따른 未來指向的인 學問의 國際化 추세를 반영하여 體系的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우리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國際的 現實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良質의 人力資源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우수한 頭腦들을 大學에서 전체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지금까지 韓國의 大學들은 그 무엇보다도 量的인 膨脹과 이의 成就를 위해서만 東奔西走해 왔던 것이다. 아울러 大學의 教育과 研究도 세계적 學問의 普遍性에서 벗어난 保守的이고 閉鎖主義的이며 機能的·道具主義的인 學問을 추구하는 데 安住해 왔던 것이다. 이같은 결과로 오늘날 우리의 大學은 日本·美國·獨逸 등 선진 국가의 大學과 비교할 때 學問的 象牙塔으로서의 時代的 役割도, 專門的 指導者의 養成機關으로도, 全人的 人格의 道場으로서도 認定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大學의 實情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오늘의 大學 現象이 전적으로 大學과 大學人만의 責任일 수는 없다. 수십 년간 지속된 教育의 政府統制化 政策으로 大學의 自律權이 상실되고, 政治指向的인 일부 운동권 學生들의 지속적인 敎權 도전과 위협으로 教育의 民主的 發展이 위축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 東京大學 공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日本 工學院大學의 總長으로 있는 혼고 가

오루 박사는 오늘날 日本 경제 발전의 原動力은 日本이 1947년 세계 제2차 대전 후 學校教育法을 大學 自律權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改定한 후 政府와 함께 大學의 大衆化를 이룩, 高等教育을 받은 人材를 많이 養成하는 데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高度技術化 社會를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요즘 日本의 慶應大學에서는 현대의 政治를 종래 政治學의 概念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작년부터 社會·文化·經濟學의인 면에서 綜合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대담하게 독자적으로 總合政策學部(한국의 單科大學에 해당)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政治學者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들 學部 내에는 政策管理 과정, 社會經營 과정, 國際政策 과정 등이 있어 政治問題를 綜合的으로 分析·判斷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環境情報學部, 人間關係學科 등 새로운 형태의 學部와 學科가 大學教育의 國際化에 따라 속속 생겨나고 있고 이같은 새로운 學科에 대한 學生들의 人氣 또한 높다는 것이다.

특히 日本의 明治學院大學과 와세다大學 등에서는 工學 분야인 종래의 電子工學이 情報工學과 有機的으로 결합해 電子情報工學科로 改編되어 주목을 끈다. 여기에서는 電子物性, デバイス(debic), 回路시스템, 計算機, 情報, 計測, 應用計 등의 학과목이 있어 學問과 實驗實習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情報工學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학문이며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 사회가 情報化됨에 따라 많은 직장에서는 情報技術과 知識을 소유하지 않으면 직무 수행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理工系 분야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분야에서도 情報工學에 대한 일반 지식과 기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즉, 대학 과정에서 컴퓨터의 조작과 이용 방법 등의 기술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私立大學들은 文科系·理工系를 막론하고 計算機 센터가 圖書館과 같이 중요한 시설로 취급되고 있다. 大學에 따라서는 퍼스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한 사람에 1대씩 설치되도록 하여 모든 學生이 다룰 수 있게 하는 추세이다. 이미 1백% 완료한 大學들도 물론 많다. 학교의 사무처리, 캠퍼스의 LAN(地域情報通信網)化, 네트워크, 學術情報센터 등의 설치도 거의 완비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이들 大學의 理工學系에서는 新素材, 新에너지, 遺傳工學, 로봇研究를 비롯한 첨단 과학과 기술의 기초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는 세계적인 研究를 수행하고 있는 教授도 많아 21세기 日本의 尖端科學技術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日本이 사회의 급격한 變化에 대응하여 大學教育의 일대 改革을 정력적으로 進行하고, 教育의 國際化를 위해 노력함을 적시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大學과 大學人만의 노력으로는 大學教育의 國際化를 이룩할 수 없는 現實的·制度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심각하고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호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지 않는 돌에는 이끼가 끼게 마련이다”는 옛 先賢의 格言이 그 어느 때보다도 實感나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